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북한 주민들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

남근우*

목 차	
I. 연구목적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
II. 저항이 상쇄된 길들여진 순종 (順從) 구조	IV. 사회주의 도덕의 현실 지속성과 길들여진 순종
III. 영화에서 그려진 현실 인정과	V. 결론

| 논문요약 |

이 글은 북한 사회에서 좌절, 분노, 저항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이유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독특한 문화인 사회주의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 도덕이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의 순종기제로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북한 사회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북한 주민들의 행위와 사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접근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에서 사회주의 도덕이 어떻게 표현되고 전형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사회주의 도덕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북한 주민들의 행위와 사고를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 북한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주제어: 북한 사회, 문화, 영화, 북한이탈주민, 사회주의 도덕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I. 연구목적

이 글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 좌절, 분노가 집단적 저항으로 표출되지 않고 사회통합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주의 도덕이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착근되어 있고, 비록 그것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 속에서 행위와 의식의 문화적 순종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북한 주민의 행위와 의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난과 사경제 활동의 증가라는 ‘물질’ 중심적 사고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난과 사경제 활동의 확산이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 혹은 급격한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배급제도의 붕괴로 심각한 생계안전을 위협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규칙과 관습이 파괴되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베링턴 무어(Barrington Moore 1966, 474)의 지적은 아직까지 북한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질적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면 북한 사회의 내구력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북한체제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는 ‘정신’, 즉 행동과 의식의 준거로 작용하는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문화가 일상에 착근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¹⁾ 사회주의 도덕은 일상화된 문화로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의 도덕적 준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사회주의 도덕이 느슨해진 것은 분명하나 소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 기간 일상에 착근되어 왔던 사회주의 도덕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왜?”라는 질문을 삭

1)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최봉대(1999); 이우영(2012; 1993); 정영철(2011); 권혁익·정병호(2013). 특히, 최봉대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의식과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구속하는 집단적인 사회심리적 힘에서 찾고 이를 집단주의, 온정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로 구분한다. 이 글은 이러한 분류를 참고하여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을 구속하는 사회심리적 힘을 ‘사회주의 도덕’으로 파악한다.

제시케 사회적 균열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환경이 초래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사회주의 도덕 내에서 용인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용인을 넘어서는 변화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의식을 사회주의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 도덕이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에 어떻게 침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제작된 북한 영화 가운데 70작품 85편을 선별해 영화에서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재구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²⁾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재구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의식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도덕은 사회통합의 균열을 억제하는 문화력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2000년 이후의 영화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북한은 1998년에 고난의 행군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부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도덕을 한층 강조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생활방식은 집단주의를 약화시켜 사회통합과 체제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인주의적 사고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생산 담론으로서 사회주의 도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일상에서 준수되도록 법, 제도 그리고 억압기구로 강제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영화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담고 있다. 영화는 이 시기의 어려움을 사회주의 도덕으로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강성대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품성과 의식, 그리고 이를 갖춘 인물상을 제시한다.

북한 영화는 주민들의 의식, 행동 그리고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 분명한 것은 영화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정신, 행동, 인물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상화된 문화로서 주민들의 삶에 착근되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³⁾

2) 2000년 이후의 영화목록은 『조선중앙년감』을 참조하였다. 분석대상 84편의 영화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이명자(2008); 전영선·권정기(2013); 전

이 글은 문화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의 내구력을 분석한 기존연구의 성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글은 북한의 문화인 사회주의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 영화에서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원인이 어떻게 표현되고 한편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주의 도덕이 현실의 체험과정에서 균열과 재구성의 반복을 통해 여전히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을 규제하는 문화적 순종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 데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저항을 상쇄하는 순종구조를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영화에서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원인과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IV장에서는 사회주의 도덕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을 규제하는 문화력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V장에서는 주민들의 행위와 의식을 문화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도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탈북자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면접자 인적 사항⁴⁾

피면접자	성별	연령대	최종 거주지	탈북연도	탈북 전 직업
A씨	남	40대 후반	함경북도	2010	사무직
B씨	남	40대 중반	양강도 혜산	2011	전문직
C씨	남	50대 초반	평양	2009	관리직
D씨	여	30대 후반	양강도 혜산	2010	서비스직
E씨	여	40대 후반	함북 청진	2010	전문직
F씨	여	50대 초반	강원도 원산	2010	전문직
G씨	여	40대 중반	양강도 혜산	2009	관리직
H씨	남	40대 초반	평북 신의주	2010	관리직
I씨	여	30대 중반	양강도 혜산	2011	전문직
J씨	여	40대 중반	함경북도	2010	주부
K씨	여	50대 초반	함북 길주	2011	주부
L씨	여	20대 후반	함북 청진	2007	학생
M씨	남	50대 초반	황해도 남포	2002	관리직
N씨	남	20대 후반	함북 길주	2011	학생

영선(2011). Suk-Young Kim(2010); 김양희(2011); 안지영(2011).

4) 회계, 경리 업무 종사자는 사무직, 교사, 교수는 전문직, 당·행정 간부는 관리직,

II. 저항이 상쇄된 길들여진 순종(順從) 구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 변화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 이러한 분노는 사람들을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이주, 이동하게 하거나 변화된 경제질서에 집단적으로 저항하게 추동한다. 생계안전을 위협하는 경제변화와 주민저항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 2004))은 경제적 변화가 주민들의 생계안전을 침해할 경우 저항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17세기 영국혁명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1991) 역시 경제적 파탄이 일반 국민들을 청교도인과 함께 혁명으로 이끈 요인으로 분석한다.

북한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저항이 아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사경제활동을 선택하였다. 스콧이 분석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농민저항과 힐이 분석한 영국혁명은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저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스콧이 분석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현재의 북한은 환경이 다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 상태였고, 배급제가 아닌 토지를 경작하는 사유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농촌사회가 식민지로 전락해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농민들이 저항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변화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저항이 표출된다는 스콧의 주장은 북한에 적용되기 여전히 한계가 있다.⁵⁾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농촌사회나 영국과 달리 북한에서는 생계위협에 직면한 주민들의 불만, 좌절, 분노가 집단저항으로 표출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시장이 북한 주민들

판매직 종사자는 서비스직으로 분류하였다.

5) 그러나 스콧의 주장은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생계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나 사회적 측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경우 분노표출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은 크다.

의 생계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국가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부분 주민들의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생계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저항이 상쇄되고 있다.⁶⁾ 물론 시장의 확산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의식이 공유되면서 당과 국가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강조한 톰슨(E. P. Tompson)을 떠올리게 한다.⁷⁾ 스콧과 힐이 말한 저항은 톰슨의 주장처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동일한 의식을 지닌 행위자들이 선택한 집단적 행위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이 주민저항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항이 표출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법과 강제기제가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물리적으로 보복하기 때문이다. 스콧(2004, 303) 역시 억압에 대한 기억이 저항과 반란의 부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실패한 저항의 경험은 또 다른 저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집단기억으로 작용한다. 저항에 대한 처벌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집단기억은 후대에 전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에 대한 집단기억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현재화된다면 저항의 의지는 약해진다. 국가의 강력한 처벌과 보복은 주민들의 길들여진 순종 혹은 행위의 수동성을 설명하는 법·제도적 요인이다.

셋째,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사회주의 도덕이 하나의 문화로서 주민들의 일상에 여전히 착근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도덕은 스콧, 힐, 그리고 톰슨의 주장이 북한에서는 예외로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인이다.

북한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는 법과 사회주의 도덕에 의해 규제된다.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써

6) 이에 대해 최봉대(1999, 233)는 주민들이 생계문제에 집중하는 경제적 상황은 정치권력이 강력해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평온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톰슨(2000, 7)에 의하면, 노동자계급은 공통된 경험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타인들과 대립되는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노동자들이 깨닫게 될 때 노동자문화가 형성된다. 톰슨은 문화를 계급형성과 관련지어 파악하면서 집단의 경험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물리적 강제력을 갖춘 특별한 제재수단에 의하여 준수된다. 사회주의 도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써 사회여론과 관습,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의하여 준수된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156; 272). 사회주의 도덕은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적합한 사고와 행위를 추동하는 윤리로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북한에서 법과 도덕의 차이는 행동규범이 어떤 수단에 의해서 유지되고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통해 구분된다. 법이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강제력에 의해 집행된다면, 사회주의 도덕은 사회여론과 관습, 그리고 양심에 의해 준수된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은 처벌이 동반되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규제되는 동시에 사회적 비난, 눈치보기, 따돌림 등이 동반되는 사회주의 도덕에 의해서도 규제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도덕은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윤리적 잣대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인가? 북한은 도덕적 행동을 객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김완선 2010, 100-101). 물질적 환경에 의해 추동되는 행동은 도덕적 행동의 객관적 요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처해 있는 물질적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 역시 변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주체적 요인은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치 않는 마음가짐에 의해 추동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체적 요인은 도덕적 행동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주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이 도덕적 행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고와 행위는 그 사고와 행위의 동기 및 결과가 개인이 아닌 집단과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로 평가받는다(김완선 2010, 125). 북한에서 사회주의 도덕은 분화된 개인으로서가 아닌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타 행위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집단 공동의 사회적 의식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은 집단의 통일과 단결에 이바지하는 덕목으로써 주민들의 의식 속에 침전되어 있다. 만약 장사를 하는 주민이 생활충화나 지도자 및 체제와 관련된 답사, 보수 건설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난

의 대상이 된다.

비록, 사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 생활총화에 불참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 행위자의 행위가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선을 넘을 경우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따돌림을 받는다(M씨, N씨). 특히, 눈치보기는 비도덕적 행위나 사고를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가장 빨리 움직이는 비문자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집단생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 혹은 규칙적인 활동을 위반했을 때 주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이 눈치이다. 북한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받는다. 만약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고와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스스로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눈치보기가 일어난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도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배급과 정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사고는 사회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양심과 비사회주의 양심 가운데 어떤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눈치보기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A씨). 북한에서 양심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통제하게 하는 도덕의식이다(김완선 2010, 150). 양심은 자기 행동의 결과나 과정, 동기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만족감과 수치감, 가책과 후회 등으로 표현된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75). 더군다나 양심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생활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를 목격한 사람도 눈치보기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와 사고에 가해지는 다양한 행위와 의식들은 사회주의 도덕이 가하는 일종의 ‘도덕적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보복을 받게 될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적응과 생존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중단하거나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행위와 사고에 복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

적 행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보복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행위와 사고를 하도록 도덕적 자각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비록 북한에서 사회주의 도덕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행위와 사고의 기준으로 작용해 왔던 사회주의 도덕은 여전히 관습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위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로 기능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개인적 성향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도덕에는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 권력은 공개되어 있기도 하고 은폐되어 있기도 하다.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도덕을 형성하고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고 실천하면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물리적 처벌이 동반된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개되어 있는 권력이다. 반면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 작업이나 김일성·김정일 동상 및 체제 선전물에 대해 참배를 거부하는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따돌림, 눈치보기, 죄스러움 등이 작용한다. 사회주의 도덕에는 비도덕적 행동과 사고를 그만두게 하거나 혹은 멈추게 하여 집단주의 생활에 복귀하도록 도덕적으로 자극하는 권력이 은폐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러한 사회주의 도덕에 충실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왔다. 도덕적 보복이 동반되는 사회주의 도덕은 일종의 은폐되어 있는 상징적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도덕은 북한의 독특한 문화로서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문화적으로 통제하는 ‘길들이는 순종기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도덕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 도덕의 최고표현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표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령께 한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대를 이어가며 충정 다하는 것”이 최고의 의리가 된다(김경숙 2010, 110).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지도자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고 관철하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작용한다. 집단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에는 집단생활윤리, 조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동지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가정생활윤리, 사회공동생활윤리가

있다.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에는 일상생활윤리가 있다. 집단과 개인 간 그리고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의 정점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고 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주의 유지가 목적이다. 결국, 사회주의 도덕은 주민과 집단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된 상태에서 위계적 명령체제로 작동되는 유일영도체계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도덕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품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과 요구되는 덕목

사회주의 도덕		요구되는 덕목
수령에 대한 충실성		·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
집단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집단생활윤리	· 집단주의 정신 · 동지에 ·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 ·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 우선 · 집단의 공동재산 관리 · 개인이기주의에 대한 투쟁
	조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 애국심 · 계획과제 완수 · 자력갱생 · 작업 및 생활환경 개선
	동지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 동지에 대한 믿음 ·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자세 · 혁명적 의리의 사수 · 약속이행
	가정생활윤리	· 가정의 혁명화 · 혁명적 가풍 확립 · 혁명적 동지애 · 자녀교양 · 화목한 생활기풍 발휘 ·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
	사회공동생활윤리	○ 노동생활 · 사회적 노동에 성실히 참가 ·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더 많이 일할 것 · 공동재산 아끼고 절약 · 맡은 바 일을 완수하고 대를 이어 노동 ○ 공동모임에서의 생활 · 예절 · 사람들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기풍 · 공공장소에서의 규율과 질서 준수 · 교통질서 준수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일상생활윤리 · 겸손 · 성실 · 청렴	

* 김경숙(2010, 105-219)

Ⅲ. 영화에서 그려진 현실 인정과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도덕이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행동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 즉 미공급에서 비롯되었다. 적어도 식량배급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주민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적었다. 정치적 결정은 상급기관이나 조직의 간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규칙과 도덕을 준수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E씨). 배급은 조직생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날라리로 지목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미공급이 확대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중앙당,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와 같은 권력기구들은 식량보급소와 외화벌이 사업소를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군수공장이나 평양방직공장과 같이 국가의 중요 기간시설에서는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해서 식량을 공급하였다(A씨, C씨). 이러한 기관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⁸⁾

북한에서 2000년 이후 제작된 영화들은 1990년대의 경제난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다룬 『자강도 사람들』(1·2부, 2000), 『철령의 대대장』(2003), 『눈 속에 핀 꽃』(2011), 『저 하늘의 연』(2008), 『봄향기』(2005) 등의 영화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언급하면서 식량, 전기, 비료, 생활물자의 부족과 고아문제를 다룬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를 정면으로 다룬 『자강도 사람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장면도 묘사하고 있

8) 미공급의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강원도 원산의 경우 빠른 지역은 1985년 경부터 매달 15일 지급되던 공급이 두세 달씩 미뤄지기 시작하였다(F씨). 함북 청진의 경우는 1994년경(E씨), 양강도 혜산은 1992년경(B씨, D씨, G씨), 함북 길주는 1987년경(K씨), 평북 신의주는 1994년경(H씨)부터이다.

다. 1990년대 북한 영화는 고난의 행군시기의 어려움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다룬다.⁹⁾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나아진 현재를 통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대다수 주민들은 경제적, 물질적 환경의 변화로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치 않는 주체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어려웠다. 영화 『인민이 너를 아는가』(2011)에서 주인공은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더 어려운 날이 온다고 해서 주면 따르고 안 주면 딴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당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별어서 살아가고 있다(A씨). 북한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당과 지도자를 믿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일보다는 오늘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A씨).

2000년 이후 제작된 영화에서는 비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을 반드시 타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비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은 미공급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북한 당국도 무조건 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방식을 등장인물의 대사와 연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기를 바치라』(2012)에서 주인공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것은 식량을 구하러 도시로 이동하거나 북·중 국경을 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농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말해준다. 또한, 영화에서는 시장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비생산적인 부문에 다니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노동력 부족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심지어 『인민이 너를 아는가』에서는 신발수리소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인

9) 이에 대해 전영선·권정기(2013)는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움을 집단적으로 치유하고 그것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문화적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물이 등장한다. 신발수리소와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장인물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장사를 허용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L씨). 그러나 영화에서는 농촌을 떠나거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을 고향에 남아 있게 유도하거나 공동노동으로 이끌지 못하는 간부들을 비판한다. 혹은 장사를 해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L씨). 이와 같이 영화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방식과 사고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영화에서는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한녀학생의 일기』(2006), 『군관의 안해들』(2000), 『내가 사는 가정』(2010), 『소원』(2011) 등의 영화에서는 가정마다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연스러운 생활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주민들은 텃밭을 개간하거나 가축을 기르면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F씨). 특히, 『내가 사는 가정』에서는 좋은 옷을 보면 “보는 족족 사놓는다고 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이 셔츠를 보니까 또 못 참겠구나.”라는 대사를 통해 시장을 통한 소유도 인정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를 다룬 영화에서는 가정집의 살림살이가 풍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농촌의 살림집에도 텔레비전이 등장한다. 영화 『소원』에서 등장인물의 아파트에는 텔레비전 이외에도 냉장고, 카세트, 카메라 심지어 피아노까지 등장한다. 비록 주민들의 생활을 과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변화된 물질적 환경에 직면하였다. 물질적 환경의 변화는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에도 영향을 주었다. 더 이상 당과 국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의 물질적 환경의 변화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생각과 실천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북한 주민들을 변화된 물질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양심을 지닌 인간으로 개조시켰다. 역설적으로 주민들이 자주적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당, 지도자, 사상이 아닌 물질적 환경의 변화

이다.

앞서 <표 1>에서 도식화한 사회주의 도덕과 요구되는 덕목들은 이러한 양심에 기초해 구현된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가 주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규제해 오던 양심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E씨). 적어도 고난의 행군시기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장사를 하면 사회적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E씨).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년에 제작된 『대흥단 책임비서』(2부)에서도 당이 요구하는 행동과 정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장마당에 나가는 험잡질”로 표현하면서 반대자의 수치심과 후회를 유발한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집단에서 지켜야할 도덕적 행동과 사고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각과 실천으로 변화되면서 집단생활은 형식화되고 있다. 집단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살 궁리를 하지 않는 바보로 간주된다. 출근을 해도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G씨). 집단생활이 형식화되면서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과제 역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은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생활총화에 불참한다. 혹은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공동노동이나 자신이 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L씨). 그렇다고 공동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과 사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생활총화에서 호상비판 받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은 생활총화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과 사고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어렵다.¹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각과 실천이 양심으로 대두되면서 동지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가정생활윤리 역시 약화되고 있다. 동지들 간의 관계는 투쟁의 한 길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로서의 의리이다(김경숙 2010, 156). 동지들 간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로서의 의리는 사회적 의무를 도덕적으로 자각하고 이행하는 양심이다(김완선 2010, 176-178).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노동을 앞장서서 더 많이 하거나, 동지를 믿고, 의지하며, 생

10) 『자기를 바치라』에서도 회의에서 가정주부나 비생산적인 부분에 나가는 부녀자들을 공동작업에 나오라고 하자 모두 항의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는 탄부였다』(2010), 『황철나무 중대』(2010), 『성강의 파도』(1·2부, 2010), 『시대가 주는 이름』(2009)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화에서는 개인의 안락한 삶 대신에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동지를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자각하는 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규칙이 있어도 작업하다 다치거나 죽는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¹¹⁾ 『대흥단 책임비서』(1부)에서는 책임비서가 자신의 딸을 힘든 노동현장에 참여시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간부들이 힘든 노동현장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L씨).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은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의 몫이 되기 때문에 동지들 간의 의리는 발휘되기 어렵다(H씨).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 역시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생각과 실천이 양심으로 등장하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가정은 혈연적 유대관계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향과 목적을 지닌 동지적 관계에 기초해 유지해 나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한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41).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이익과 행복만을 위한 행위는 사회주의 도덕에 비추어 볼 때 비양심적인 행위로 된다. 『군관의 안해들』, 『해빛 밝아라』(2010), 『행복의 수레바퀴』(2010)에서는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한 등장인물이 자책감과 후회를 통해 가정의 행복보다는 사회와 집단의 행복을 위해 나설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남편은 식량을 구하러 고향을 떠나고, 부인은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현실에서 지도자와 당이 원하는 동지적 관계로서의 가정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가정의 행복조차 책임지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지닌 부모가 많아지면서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가정의 혁명화는 부모와 처자식에 대한 비양심적 요구일 수밖에 없다(A씨).

시장의 확산으로 장사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자녀교양의 목적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자녀교양의 목적이 집단과

11) 이 점은 북한 영화에서도 솔직하게 담고 있다. 『그는 탄부였다』, 『대흥단 책임비서』(1부) 등의 영화에서는 고된 노동에 지쳐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솔직히 그리고 있다.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평양에 보내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A씨, L씨). 영화 『산촌에 피는 노을』(2010)에서 시골 교사로 부임한 주인공은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학생과 가정을 교화하는 전형적인 북한 교원의 역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탁아소에서부터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K씨),¹²⁾ 소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서 학교보수 비용, 교과서 대금 및 ‘꼬마자금’ 명목으로 토끼털, 파지, 파철, 약초 등을 요구한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수확을 끝낸 밭에서 감자이삭을 구해 학교에 내기도 한다(A씨, G씨, J씨). 그러다보니 돈이 있는 가정의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G씨). 『자기를 바치라』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응시 자격시험에 3등을 한 군책임비서의 딸을 군경영위원장이 1등한 일반 학생 대신에 추천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와 같이 돈이 있거나 간부의 자녀들은 평양에 가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녀교양이 당과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변화되고 있다.

IV. 사회주의 도덕의 현실 지속성과 길들여진 순종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약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도덕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가 체제 결속을 와해시킬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는 당과 국가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주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물질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변치 않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다.

12) 대학교원 출신 B씨의 경우 생활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현실에서 사회주의 도덕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물질생활의 보장에 있다. 주민들이 당과 국가로부터 생계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도덕이 요구하는 일부 덕목들이 일상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는 당연한 현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화는 바로 물질적 환경의 변화로 변할 수밖에 없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의식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를 다룬다는 것은 반대로 북한 당국이 경제환경의 변화로 변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를 일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반증한다. 영화에서 비판되지 않고 묘사되는 일상의 모습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행위와 의식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16세 이상 북한 주민들 가운데 약 83%가 사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정형곤 외 2012, 76). 북한 주민들의 시장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의 비율은 56.8%(2008년)→66.7%(2009년)→69.3%(2011년)→69.2%(2012년)→75.9%(2013년)로 조사되었다(김병로 2013, 65).

이와 같이 현실의 경제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위와 의식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문화는 결코 정태적이고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적인 과정이다. 북한도 이러한 문화의 특성에서 예외일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변화이고, 이는 체제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식의 변화가 체제 내에서 용인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용인을 넘어서는 변화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지도자, 당, 체제에 대한 무비판성, 그리고 사회적 의무에 대해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히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를 구속하고 있다(L씨, M씨, N씨). 이 점은 영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분조의 주인』(2011), 『내 고향의 바다』(2005), 『충북』(2005)을 비롯한 많은 영화에서는 지도자와 당의 지시와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을 묘사한다. 갈등은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이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되어 부정인물을 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인물은 긍정인물에 의해서 설득되어 구성원들 간의 단결이 강화되는 것으로 설정된다. 부정인물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인물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의식이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정인물은 바로 현실에서 지도자와 당의 지시와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영화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입하려는 의식과 행동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과 행동은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 착근되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문화로 작용해 왔다. 그래서 영화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보여준다.

영화는 사회주의 도덕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비판적 질문을 제거시켜 사회통합의 문화력으로 여전히 작동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주민들은 지도자, 당, 체제, 그리고 사회적 의무에 대해 “왜?”라는 비판적 성격의 반문을 하지 않는다(N씨). 오랜 기간 집단기억으로 전승되어 온 지도자와 당에 대한 신적 무오류성의 의식과 사회적 과제에 대한 동원과 실행의 당위성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 생활총화나 사회적 과제 수행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참여해야지? 왜 사회적 과제를 수행해야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대신에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불참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과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혹은 지도자와 당의 지시와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간부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판의식이 대체된다(N씨).

사회주의 도덕의 최고 표현이자 정점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이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를 통해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회주의 도덕을 형상화한다.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여전히 준수해야 할 도덕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착근되어 있다. 북한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사고를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다.¹³⁾ 10대 원칙은 지도자의 권위

13) 1974년 4월 김정일이 공식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2013

를 절대화하여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한다. 지도자의 교시는 무조건 실천되어야 한다. 심지어 지도자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회장, 초상화가 담긴 출판물, 지도자를 형상한 미술작품,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 등도 철저히 보위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와 사고는 비양심적 행위를 넘어서 '반역자'로 사회적 낙인을 받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L씨). 그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해서는 의문과 비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의 의식 속에 침전되어 왔다(N씨).¹⁴⁾ 10대 원칙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첫째, 지도자는 주민들의 인민반 생활에서 여전히 호명되어진다. 인민반은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동원과제를 하달하는 주거지 단위로 조직된 최말단 정치조직이다. 경제난과 각종 노력동원으로 인민반회의에서 주민들이 과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장사를 나가 불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자와 당의 지시사항이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특히, 인민반 생활총화에서는 개인의 행동, 사고, 말, 그리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도자의 교시를 인용해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이 이루어진다.¹⁵⁾ 생활총화는 조직원들 앞에서 자기생활과 타자의 생활에 대한 도덕성을 공개하고 도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장소이다. 또한, 인민반 강연회에서도 지도자와 당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비사회주의적 행동과 사고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총화나 강연회에서 인민반장이나 연사가 장군님과 당만 믿고 고난을 극복하자고 이

년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되었다.

14) 북한 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탈북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2008년 49.3%, 2009년 54.3%, 2011년 55.7%, 2012년 70.7%로 조사되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2013년 61.7%로 나타났다(김병로 2013, 75).

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생활총화 참여율이 30% 미만이라는 응답은 9.2%(2012년), 10.5%(2013년)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70-90%라는 응답은 36.9%(2012년), 29.3%(2013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17.5%(2011), 13.8%(2012), 17.3%(2013년)로 조사되었다(김병로 2013, 68-69).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생활총화 참여율은 떨어졌지만, 생활총화는 뇌물이나 대리참석과 같은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를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기를 하면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도자와 당에 대한 반대 행위와 사고는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도덕을 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A씨).

그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도자와 당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은 영화 『소원』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도자와 사진을 찍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도자와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 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출세를 하지 않을까,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N씨). 이러한 의식은 문화적 측면에서 오랜 기간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도자에 대한 무오류성이 충성과 존경의 의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에 대한 무오류성, 존경 등의 의식은 통일의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가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¹⁶⁾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통일을 주도하거나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다(A씨, L씨, N씨).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도자에 대해 “왜”라는 비판의식을 갖지 못한다. 혹은 그러한 의식이 생긴다고 해도 눈치보기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군인의 경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복무의 길』(2001), 『북두칠성』(2009), 『백두의 뿔나무』(2009), 『백옥』(1·2부), 『비행사 길영조』(1998), 『폭발물처리대원』(2012), 『들꽃소녀』(2012) 등의 영화에서도 묘사되듯이 ‘충폭탄’, ‘수령결사옹위’, ‘대를 이은 충성’의 정신으로 표현된다. 경제난과 외부사조의 영향으로 군인들 사이에서도 개인주의, 배금주의 혹은 부대 이탈과 같은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일탈행위는 영화 『우리 정치 지도원』(2010)이나 『황철나무중대』(2010)에서처럼 교양 위주로 설복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한, 군대는 일반주민과 달리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집단이다.¹⁷⁾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

16) KBS 스페셜 통일 대기획 (2011), “북한주민 통일을 말하다”, <http://www.youtube.com/watch?v=zwwiNNOUVSM&feature=youtu.be>. (2014년 9월 7일 검색)

17) 탈북 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교덕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과 외부사조의 유입이 북한군의 전투의지의 약화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L씨).¹⁸⁾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군인들에게서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휴전선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경우 사상무장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평가(L씨)할 수 있다(이교덕 2011, 162; 168).

둘째, 조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에서 애국심은 10대 원칙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지도자와 관련된 동상, 기념비, 사적지에 대한 참배, 답사 및 보수건설의 참여로도 표출되고 있다(『백두의 뭇나무』). 인민반회이나 공동작업의 경우 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는 있으나 지도자의 생일, 기념일 그리고 정치행사에는 모든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보수 및 건설에서도 주민들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무로 되고 있다(A씨, N씨). 따라서 참배, 답사 및 보수건설에 나가는 행위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L씨).

또한, 애국심은 미국에 대한 분노와 적대심으로도 표출된다. 『성강의 파도』, 『조난』(2009), 『생명선』(2009) 등의 영화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여과없이 표현된다. 이러한 반미감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중심으로서 지도자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지도자를 일심단결로 보위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핵무기가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는 지도자의 은혜라는 인식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N씨). 이러한 미국에 대한 적대심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체제 결속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비록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도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각인되고 있다(N씨).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과 핵을 보유하게 한

남한보다 월등하다는 응답이 70.5%를 차지하였고,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은 67.5%, 질 것이라는 응답은 0.5%를 보였다. 연구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간부나 주민들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5.5%로 나타났다(이교덕 2013). 이러한 응답에 비추어 볼 때 사상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군대의 경우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8) 경제난과 외부사조의 유입이 북한군의 의식변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병욱·김영희(2013) 참조.

지도자에 대한 위대성을 각인시켜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내면화해 체제 결속력으로 작용한다.

셋째,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주어진 과제를 무조건 완수하는 무조건성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와 약화된 사회주의 도덕을 강화하기 위해 선군정치 문화를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명령-복종체계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갖춘 당의 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가 등장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되었다(김정일 2000b, 292-295). 혁명적 군인정신은 주어진 과제의 무조건 달성, 자력갱생, 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정일 2000a, 223). 혁명적 군인정신은 영화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군인과 제대군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건설과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특히, 제대군인은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이나 노동 강도가 강한 노동현장에 집단 배치된다(E씨). 이들은 군대와 사회의 연결매개체로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사회에 전파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대흥단 책임비서』(4부, 2001), 『청년들을 자랑하라』(2003), 『그는 대좌였다』(2004), 『붉은 열매』(2004), 『내 고향의 바다』, 『복 받은 대지에서』(2010) 등을 비롯한 많은 영화들은 군인과 제대군인, 그리고 청년들이 앞장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군수공장, 주요기간산업, 외화벌이 기업소를 제외한 많은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산과 건설, 그리고 농촌에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장비, 전력, 연료, 비료 등이 부족해 생산과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100일 전투, 150일 전투와 같은 돌격대식의 전투를 벌인다. 전투에 동원되는 군인, 제대군인, 청년돌격대는 영화에서처럼 동지애, 헌신성, 희생성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도덕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돌격대 생활에서 작업이 힘들어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된 작업을 수행하고 난 후 주어지는 음식을 먹을 때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람의식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다고 한다(L씨, N씨).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내면화가 주어진 과제의 무조건 완수라는 행위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 역시 과제 완수의 무조건성은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과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G씨, I씨, J씨). 다만, 주어진 과제 수행은 고난의 행군시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건설과 공사와 같이 노동력이 대규모로 요구되는 작업에는 군인, 체대군인, 청년돌격대가 동원되지만, 이들에게 제공할 의복, 장갑 및 생산도구 구입비 등은 인민반별로 경제자금, 꼬마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회적 과제로 할당된다. 인민반에서는 이를 각 가정에 사회적 과제로 할당한다. 자신의 할당량을 완수하고 남는 것은 본인의 몫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은 부업활동에 종사하고 남는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거나 당이나 기관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과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G씨). 혹은 장사를 하지 않거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과제를 대신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I씨). 비록 경제난 이후 과제 수행의 방식은 다양하게 변했지만 분명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과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현물이나 돈을 내는 사회적 과제 이외에도 모든 주민들은 조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 중 지역 환경개선사업, 공원 환경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활총화에서 호상비판을 받기 때문에 장사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라도 대신 나가야 한다(L씨). 북한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할당된 과제나 공동노동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과제는 무조건 완수해야 하고, 생활총화와 공동노동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약 불참할 경우 인민반장이나 여맹위원장 은 불참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상투쟁을 통해 수치심을 주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개인적 보복을 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실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불필요한 비판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기도 한다(G씨).

넷째, 뇌물을 받거나 개인주의에 물든 간부들도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양심을 지닌 주민과 생산관리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회주의 도덕은 김일성시대를 살았던 나이든 사람들이나, 외부정보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강하게 침전되어 있다(N씨). 특히, 일상에서 사회주의 도덕의 실천과 관련하여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민반장을 비롯해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정치사회 조직의 간부들이다. 이들은 생활총화와 강연회 등을 주관하면서 주민들의 10대 원칙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지도자와 당의 지시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높다(L씨).

영화에서도 헌신성, 희생성, 그리고 동지애를 갖춘 간부와 그렇지 않은 인물 간에 갈등관계를 묘사하고 있듯이 현실에서도 사회주의 도덕이 요구하는 덕목을 갖춘 간부들은 존재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와 배급이 중단되면서 생산기관의 관리자들은 장사를 하지 않는 노동자나 농장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생산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타 기관과 생산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이윤을 분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생산물이나 식량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생산관리자는 동료들의 생계문제를 책임지는 헌신성과 동지애를 지닌 인물이다(E씨).

북한은 1961년 대안의 사업체계를 시행하면서부터 기업소의 당 비서나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같이 당에서 파견한 간부가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 및 작업반장과 같은 생산관리자보다 권한이 강하였다. 그러다보니 당에서 파견된 간부가 생산관리자에게 월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서 파견된 간부는 상급기관의 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제사업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생산관리자는 대체로 경제적 차원에서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당 비서가 생산관리자의 정치생활을 직접 평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생산관리자는 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의 월권행사를 제재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월권행사와 이로 인한 피해는 김일성도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던 문제이다(김일성 1983, 194).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당 비서보다는 생산관리자에 대한 선호가 남아 있다(E씨).¹⁹⁾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요구되는 덕목들을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감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와 사고가 무엇인지 눈치보기를 통해 발현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도덕이 용납되지 않는 행위와 사고에 가하는 일종의 도덕적 보복이다. 이러한 도덕적 보복을 받게 될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생존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중단하거나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행위와 사고에 복귀하려는 의식을 갖는다. 비록 사회주의 도덕에서 요구하는 동지애, 헌신성, 희생성 등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보복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행위와 사고를 하도록 도덕적 자각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V.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은 사회를 통합하는 문화력으로서 여전히 주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문화적 순종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은 주민들이 불만, 좌절, 분노를 집단저항으로 표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화적 설명요인이다. 사회주의 도덕은 경제환경으로 변화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일정부분 용인하면서도 주민들을 체제 내에 결속되도록 의식과 행동을 도덕적으로 통제한다.

문화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대상화된 하나의 생활방식과 의식이 아니

19) 탈북자 E씨는 북한 영화에서 당비서가 헌신적인 간부로 등장하고 지배인이 건달로 나오는 영화에 대해 “그건 거꾸로 만든 영화”라고 평가한다. “지배인이 당 비서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하고 당 비서는 술이나 마시는 건달”이라고 표현한다.

다. 문화는 일정한 시간을 갖고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특정 계급과 집단만의 생활방식과 의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는 보통사람과 집단의 삶과 행위의 경험에서 발현되는 복수의 생활방식과 의식까지 포함한다. 북한 영화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사고의 변화를 비판하지 않고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문화가 갖는 이러한 특성이 북한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유일영도체계를 유지하는 사회에서 문화는 당의 절대적인 통제 대상이 된다. 당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문화가 균열되면 문화가 수행했던 사회 통합의 기능이 훼손되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남근우 2014a, 172). 북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방식과 의식은 경제난 이전에는 체제에서 용납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위와 의식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영화의 등장인물이 사회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와 의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기하는 도덕적 보복은 사회주의 도덕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와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비록 북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주민들의 일상에 착근되어 왔던 사회주의 도덕 문화는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주의 도덕에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의 행위와 사고는 개방된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착근되어 있는 사회주의 도덕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첫째,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라는 정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는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다. 비록 경제난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과거만 못하지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덕적 순종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가 억압적 강제기제의 감시와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선출된 헌법상 그리고 당 규약 상의 지도자라는 사실이다.

북한 지도자를 부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북한 권력층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한국으로의 흡수통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행위가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은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역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는 개방된 사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를 갖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한국은 김정은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지도자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라는 정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체제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토대에서 한국이 원하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은 보다 나은 물질적, 경제적 생활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사회주의 도덕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덕목과 억압적 강제기제를 통한 공포심 유발로 영원히 가뒀을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를 확대 추진해 사회주의 도덕을 약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인민이 너를 아는가』는 구소련영화, 인도영화, 중국영화, 그리고 한국영화를 접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진부한 제목이다(L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배우들이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영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관람한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해외 영상물을 보다 많이 접할 경우 이들 국가의 배우에 대한 친숙함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 영화의 등장배우가 형상화하는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다른 나라 영화에 등

장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대사, 의식,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돼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 사회에 보다 많은 정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호혜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상호주의’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호혜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상호주의는 한국만의 조건 없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과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에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물망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일방주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기대수준만 높였다.

호혜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상호주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상호존중의 정신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동시성과 등가교환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호혜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상호주의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되, 북한이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경우 그 이상의 이익을 국제사회가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근우 2014b, 169-170).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호혜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상호주의를 통해 시혜적 성격의 인도적 물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마을과 인민반에 물자가 직접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직접 개발과 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 현실과 경제 현실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민과 선경정치로 바뀌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소유권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갖춘 중산층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통해 소위 북한체제의 ‘진화’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²⁰⁾

20) 최근 북한을 정상국가화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낙근(2014)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삼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에 둔 북한체제의 ‘진화’를 제시한다. 북한체제의 진화는 선군정치를 선민, 선경정치로, 주도세력을 군부에서 당과 정부로, 북한의 경제난을 경제건설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

- 김경숙 (2010). 『사회주의 생활윤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병로 (2013). “북한주민의 북한과 남북관계 인식.”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8월.
- 김병욱·김영희 (2013). “외부 사조 유입과 북한군 의식변화 실체.”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pp. 25-49.
- 김일성 (1983). “당 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1967. 3. 17-24).”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양희 (2011). “조선예술영화에 나타난 북한의 식생활정책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1호, pp. 271-310.
- 김완선 (2010). 『주체의 료리학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일 (2000a).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1996. 8. 24).”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b).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1997. 3. 17).”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권현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 남근우 (2014a).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통일인문학』. 제58집, pp. 163-194.
- _____ (2014b). “올바른 대북정책.”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포럼 편.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pp. 166-173.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안지영 (2011). “북한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상 연구.” 『통일인문학논총』. 제51집, pp. 233-261.
- 이교덕 (2013). “북한주민 의식변화와 북한군.” 한국국방연구원 발표자료. 서울. 7월.
- _____ (2011). 『북한군 기강해이』. 서울: 통일연구원.
- 이명자 (2008). “세대의 임무-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문화적 변동.” 『영화연구』. 36호, pp. 371-395.
- 이우영 (1993).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12).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pp. 69-92.
- 전영선·권정기 (2013).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북한연구학회보』. 제

- 17권. 1호, pp. 205-227.
- 전영선 (2011). “북한 영화에 나타난 생활경제 문제.” 『통일인문학논총』. 제51집, pp. 287-309.
- 정낙근 (2014). “토론문.”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통일정책세미나. 서울. 4월.
- 정영철 (2011). “북한의 생활문화로서 도덕.”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9호, pp. 261-288.
- 정형곤·김병연·이석 (2012).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 제임스 스콧 (2004). 『농민의 도덕경제』. 김춘동 역. 서울: 아카넷.
- 최봉대 (1999). “북한 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 pp. 233-302.
- E. P. 톰슨 (2000).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나종일 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 Hill, Christopher (1991).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New York: Penguin Books.
- Moore Jr. Barrington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Suk-Young Kim (2010). *Illusive Utopia: Theater, Film, and Everyday Performance in North Kore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BS 스페셜 통일 대기획 (2011). “북한주민 통일을 말하다.” <http://www.youtube.com/watch?v=zwwiNNOUVSM&feature=youtu.be>. (2014년 9월 7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21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5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Weakening and Sustainability of Socialist
Ethics observed through North Korean Films
and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Why does North Korean not to resist?**

Nam, Keunwoo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ulturally analyze that why North Korean don't Resist.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ed on the socialist ethics that is the unique culture of the North Korea. This socialist ethics still work to obedience mechanisms of action and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Looking at North Korea with reference to aspects of culture, we reserve that socialist ethics of North Korea has influenced on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 Therefore the socialist ethics will be continually emphasized as obedience mechanisms of action and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This article reviews North Korea films after the 2000s on socialist ethics to find that how socialist ethics is represented in the North Korean films. The North Korean films released since 2000 show how socialist ethics as a culture are dealt with in North Korea. And This article examines how north Korean films incorporate North Korean action and consciousness through a survey about North Korean refugees.

▪ Key words: North Korean society, Culture, North Korean film, North Korean Refugees, Socialist ethics